

잡아함 48. 신경 (信經) ②

날짜: 1월 6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33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신심이 있는 선남자는 바른 믿음으로 집에서 집 아닌 데로 출가하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.

‘나는 마땅히 법에 수순하여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닦아 머무르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닦아 머무르리라.’

신심이 있는 선남자는 바른 믿음으로 집 아닌 데로 출가하여 색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닦아 머무르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많이 닦아 머무른 뒤에는 색에서 떠나게 되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에서 떠나게 되느니라.

그러면 나는 ‘이들은 모든 태어남 · 늙음 · 병듦 · 죽음 · 근심 · 슬픔 · 괴로움 · 번민을 다 떠났다’고 말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.